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 성료 추석 전 농민공익수당 분다

‘100마일 코스’ 국내 첫 도입 등 총 5개 코스 1963명 선수 기량 겨뤄

장수군은 ‘한국의 샤모니’를 꿈꾸며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린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100M(112명), 100K(134명), 38K-P(680명), 38K-J(635명), 20K(402명) 등 총 5개 코스에 1,963명의 선수가 참가해 장수의 청정 산악 지형을 누비며 기량을 겨뤘다. 코스별 우승자는 △100M 조계훈 선수(30시간25분23초), 이하는 선수(38시간2분49초) △100K 임정현 선수(15시간08분16초), 김연은 선수(19시간14분20초) △38K-P 심재덕 선수(4시간31분01초), 윤현정 선수(5시간31분01초) △38K-J 이형모 선수(4시간33분27초), 이현주 선수(5시간57분44초) △20K 이규호 선수(2시간24분58초), 신기해 선수(2시간37분44초)로,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100마일 코스(170.8km)는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팔공산, 봉화산, 장수덕유산 서봉, 침령산성, 장안산 등을 거치는 국내 최장 거리 코스로, 총 112명



‘한국의 샤모니’를 꿈꾸며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린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출전해 43명이 완주에 성공했다. 이는 국내 트레일레이스 역사상 최초의 100마일 코스 완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행사장에서는 타이틀스폰서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21개 브랜드가 부스를 운영하며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전북테크노파크와 캠퍼스종합기술원이 지원한 판촉·홍보행사에서는 장수의 대표 레드푸드인 사과, 오미자, 토마토를 활용한 농식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최훈식 군수는 “다른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100마일 코스를 성공시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이 산악 레저의 성지 ‘한국의 샤모니’ 국제 산악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수트레일레이스’의 내실화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국가사적 침령산성 발굴조사 현장 점검

삼국시대~후삼국까지 이어진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

장수군은 이정우 부군수가 국가사적인 침령산성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발굴조사 자문회의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국가유산청의 총 5억원 규모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을 받아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수행했으며, 산성 내 하단부에 위치한 집수정 2기와 내성벽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는 물론 통일신라와 후삼국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며, 당시의 정치·문화적 상황과 교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3호 집수시설에서는 ‘거칠산군(居栗山郡)’에 가는 길 8설이라는 내용의 목간이 출토됐다.

거칠산군은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일대로, 과거 고대사회에 장수군과 부산 지역 간의 교류가 있었음을 밝히는 중요한 1차 사료가 확인되었다. 장수 침령산성은 지난 2023년 8월 31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삼국시대 전북 동부지역의 역사성과 가야·백제·신라의 역학 관계를 밝히는 핵심 유적으로 손꼽힌다. 또한 성벽 축조 방식과 집수시설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역사 현장으로, 후백제와 통일신라의 고유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업무협약

진안군은 29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용담호 탐방객 원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용담호 인근 수천휴게소를 리모델링해 경관 친화형 원터와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방문객

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이 투입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5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5,000만원과 군비 3,500만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시



설계선공사를 거쳐 2027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10월 2일까지 5548농가에 총 32억7000여만원 지급

무주군은 10월 2일까지 지역 내 5,548농가에 ‘2025년 농민공익수당’ 총 3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인 경영체에 60만 원, 2인 이상의 농업경영체에는 구상원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농민공익수당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및 농업경영체(또는 양봉업)를 유지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추석 명절 전후에 지급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 전용 무주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신규 대상자이거나 카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카드

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신상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난 2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충전을 시작해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전 잔액은 나이스정보통신 고객센터(1644-9760), 고향사랑페이앱, 농협 발급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은 (재)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농협에서 (재)발급받으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완료지구 상생 네트워크 구축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완료지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각 센터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넘어선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사업은 완료지구 시설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강사 등록제 도입과 수요 기반 프로그램 개설 등 커리큘럼 기반의 운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주민자치 및 사업 프로그램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센터 중심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최근 준공된 부남면 비단강문화센터는 북카페, 체력 단련실, 제과제빵실 등 신규 공간을 소개하며 컴퓨터 교육 등 주민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센터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사무장 및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비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통한 의사소통 강화도 제안되었다. 무주군은 완료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평생교육팀 등 타 부서와의 연계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 총 9개소 운영

진안군은 29일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주천면 정주천로 1238)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로 관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총 9개소(본소 1개, 분소 8개)가 운영돼 지역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개소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 지역 농업인,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개소를 축하했다. 이날 개소한 임대사업소는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천면 지역 영농에 필요한 주요 농기계 24종 47대를 갖췄다. 이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장비를 임대할 수 있어 시간 절약과 경영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민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최대 3%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총 5세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와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생계·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2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에 하면되며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무주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관광협의회

팝업스토어 성료

(사)진안군관광협의회는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홍삼축제 기간 동안 마이산 여행자센터에서 운영한 특별 체험공간 ‘뽕망이네 집’으로 놀러와 팝업스토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진안군 대표 캐릭터 ‘뽕망이’를 활용해 마련된 복합 체험 공간으로,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흘간 최소 2,0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해 포토존 촬영, 스탬프 투어, SNS 인증 이벤트,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플로로이드 촬영 이벤트는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로 물량을 준비했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새롭게 리뉴얼된 ‘뽕망이’의 세련된 디자인과 일사수행 표정, 다양한 콘셉트의 캐리커는 어린이뿐 아니라 젊은층에게도 친근한 매력으로 다가가며 진안 관광의 이미지를 한층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